

(1) 사사기 7 장 1-8 절

제목: 우리가 사랑하는 유일한 분

대지: 우리가 두려워 하는 것 /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한줄요약: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여러 민족들이 치러 올라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궁핍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몇 차례 시험하지만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드디어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진을 치게 하십니다. **13 만 5 천명의 미디안을 치기 위해 3 만 2 천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룻 샘 곁에 모여 진을 쳤습니다.** 3 만 2 천명이라는 숫자는 미디안을 치기에 터무니 없이 적었습니다.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은 군사력이 치명타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보면 이스라엘 3 만 2 천명의 군사는 수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면 백성들은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할만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에도 나와있듯 **전쟁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2 만 2 천명이 떠나고 1 만명 남았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군사의 수를 줄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혹시 이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자랑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1 만명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활아서 먹는 무리와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무리로 나누어 그 중 **300 명을 최종적으로 남기십니다.**

300 명이라는 숫자는 3 만 2 천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긴다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병력 감축을 통해 3 만 2 천명이 300 명이 되었고 100 분의 1 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스라엘 한 병사당 미디안 450 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게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 우리들에게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삶을 살아가고 섬기며 이에 따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혹여 현실의 걱정과 갈등과 문제 가운데

압도되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목도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많은 감사와 행복 가운데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2) 사사기 16 장 23-31 절

제목: 어둠 속 작은 태양, 삼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 유일한 희망 되신 그리스도

한줄요약: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 되신 그리스도

사사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악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그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감을 보여줍니다.

**삼손 이야기는 '소라 땅에 단 지파 마노아'와 '그 아내의 불임'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불임으로 희망도 없고 미래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불임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신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지만 불가능한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하신다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삼손이 여인을 좋아함과 사자를 죽이고 그 안의 꿀을 먹는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는 아내를 돌려받지 못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감람원에 불사르고 후에 블레셋 사람까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네번째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 네번째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삼손이 들릴라 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을 그 여인을 이용하여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끌고가려 했지만 번번히 그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을 실패합니다.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을 압박하였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비밀을 실토합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평생토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수 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신 다곤을 숭배하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던 삼손을 불러 재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집을 받치는 두 기둥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간구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구합니다. 삼손이 두 기둥 잡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기둥과 집이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숭배하던 다곤의 신전을 부숨으로 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희망이 없는 불임의 상태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나실인의 출생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번번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주변 나라의 노예가 되어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된 채 무기력하게 맷돌을 돌리고 재주를 부리는 삼손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삼손도,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천국을,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 **(3) 사사기 21 장 15-25 절**

제목: 왕이 없는 시대

대지: 사람의 소견 / 하나님의 섭리

한줄요약: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며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기 19 장에서 21 장은 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무참하게 폭행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 일이 그의 남편을 통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게 되었고 모든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끊어질 뻔 하여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 400 명과 실로에서 여자 200 명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함으로 베냐민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의 본문은 시대가 지날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베넬에서는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사라질 것에 대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베냐민 군사 600 명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납치한 야베스 길르앗 처녀 400 명을 주었고 나머지 부족한 200 명의 여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대안을 생각하여 한번 더 납치를 합니다. 바로 실로에 해마다 열리는 여호와와 축제에서 숨어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면 한 명씩 납치하여 베냐민 땅에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사용된 '납치하다'의 동사는 악한 일을 묘사하는 동작입니다. 여호와와 축제와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 성도들을 납치를 했음에도 **백성들은 본인들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이렇듯 죄는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각 지파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었던 한 여인의 사건이 한 지파가 전체가 멸살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어졌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데로 행하였다"고 기록하며 사사기를 씌운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기준과 지혜로 산다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 사사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기신 삶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4) 에스더 4 장 13-17 절

제목: 날 부르신 이유

대지: 불확실한 상황 / 확실한 믿음

한줄요약: 모르드개의 제안에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확신하며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전체와 애굽을 지배하던 시대의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귀환한 포로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많은 유대인들은 남아 있곤 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하수어로 왕의 치리 기간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민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당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당시 엄청난 국력을 지닌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자신의 명예에 응하지 않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몇 년이 흐르고 **왕이 대신들 중에 한 사람을 가장 높은 장관으로 승진시키로 했습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를 선택하고 귀족들에게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개는 하만의 승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모르드개는 그가 키우고 돌보았던 조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모르드개의 제안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궁중 법도를 이야기하며 왕을 뵙기를 청해도 소용이 없고 왕에게 다시 부름을 받는 보장도 희박함을 말합니다. 에스더의 논지는 그녀가 모르드개의 제안을 수락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르드개의 답변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궁중 법의 무서움을 설명했지만 모르드개는 에스더 4:13-15 절에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며 궁중의 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법과 섭리에 대해 말합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고 왕후이지만 그녀의 정체성이 유대인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는 에스더와 그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모르드개의 촉구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르드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수산에 유대인을 다 모아 에스더 자신을 위하여 삼 일을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에스더는 양아버지였던 삼촌 모르드개의 말에 수동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민족 전체를 구해야 하는 책임감을 안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이유가 합리적인가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에스더가 전에는 모르드개의 돌봄 안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는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유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어려운 제안이었지만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자신의 역할을 해나갑니다. 에스더 뿐 아니라 모르드개도 불확실 속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선택의 기로 마다 다음 스텝의 결과가 어떠할지 어느 하나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